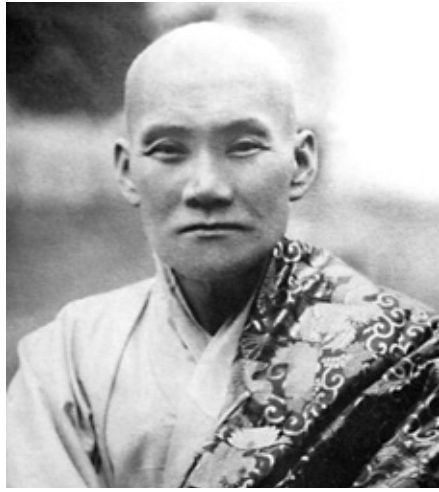


한암의 눈으로 경허를 본다

한암사상연구, 15일 한암 스님 친필원고 '경허집' 주제 첫 학술회의



한암 스님

한국선의 종홍조 경허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법제자 한암 스님(1876~1951)이 손으로 엮은 '경허집'이 학술적으로 조명된다. 평창 월정사 한암사상연구원(문도회장



경허 스님

현해)은 6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한암사상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회의의 주제발표는 총 4개의 소주제로 진행된다. '한암의 격외관문(格外關門)과 간화(看話)'(변희옥 서울대 철학과 교수), '경허집'편찬, 간행의 경위와 변모 양상'(이상하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한암과 만공'(김광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허의 지음자 한암'(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부산의 고서점에서 발견돼 2년 전 월정사에 기증된 한암 스님의 1931년판 '경허집'을 비롯해 1943년 만해 스님이 정리한 선학원판 '경허집' 등 각 경허집이 비교 분석된다. 학술회의에서는 경허집의 비교를 통해 경허 스님과 한암 스님의 사상의 관계와 이 시대 승가상에 대해 조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허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전했던 친필 편지를 통해 두 사제간의 각별했던 만남과 헤어짐 등을 소개하고, 경

허 스님의 대표적인 두 제자로 알려진 한암과 만공 스님의 차이점도 살핀다. 또 한암사상을 연구해온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경허 선사와 한암 스님을 인가한 후 해인사를 떠나며 남긴 '전별사'를 통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즉 '지음자'(知音者)라고 칭한 이유를 살펴본다.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은 "사회의 표상이 될 승가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칼과 포화 속에서 도 수행정진을 이어나 한암 스님의 참모습을 통해 참다운 스님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지정 논평자를 두지 않고 종합토론에서 논평자 3인과 발표자, 그리고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발표문에 대한 언급 뿐만 아니라 두 선승의 삶과 사상을 자유로이 논하며 절차탁마하자는 취지다. 노덕현 기자

일 목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8 - 전도몽상 내려놓기2

있는 그대로 보아야 괴로움 벗어난다

앞에서 왜곡 또는 전도몽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리석음, 탐욕, 성냄이라고 했다. 그러면 전도몽상이 일어날 때는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삶에서 다양한 왜곡의 형태가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無常]을 영원한 것[常]으로, 괴로움[苦]을 행복[樂]으로, 자아가 없는 것[無我]을 자아가 있는 것[我]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왜곡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과 정신의 적당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항상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를 통찰하지 못하고 세상이 영원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과학의 성과로 물질이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의 모든 현상들은 형성된 것이다.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것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는 두 번째 왜곡은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의미가 없이 만든다. 행복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데 행복하고자 원하면서 본질적으로 괴로운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이 노력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세 번째 왜곡은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자아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실체이고 물질과 정신에 지배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과 정신은 변하는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단 조건을 따라 일어난 마음은 사라지지 않게 할 수는 없고 행복한 마음만 일어나도록 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고정 불변하는 실체인 자아가 있을 수가 없다. 자아는 단지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견일 뿐이지 실

무상은 무상으로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보아야 팔정도 수행으로 어리석음·탐욕·성냄 버려야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니, 그것이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를 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 (A1:58) 지혜를 개발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마음도 적당한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견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 두 번째의 왜곡은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말한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고통스러운 느낌은 일어나는 순간이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나 평온한 느낌은 일어날 때는 괴로움이 아니지만 이들이 사라지면 괴로움이다. 또한 느낌을 제외한 세상 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상에서 전도몽상의 전형적인 세 가지를 형태를 알아보았다. 이 세 가지 전도몽상이 우리 삶을 계속 영기게 하고 왜곡되게 하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위의 세 가지 전도몽상을 철저히 버리고 무상을 무상으로,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무아를 무아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팔정도 수행을 통하여 전도몽상의 근본 원인이 되는 어리석음과 탐욕과 성냄을 버려야 한다. 일목 스님(제타와라 병배선원장)



일목 스님(제타와라 병배선원장)

한국선과 간화선 무엇이 먼저인가

동국대 종학연구 개소 기념, 학술대회 성료

일본·중국·티베트 불교와 선(禪)이 서구를 중심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한국불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한국선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단행본조차 없는 한국 불교계의 현실을 비추는 때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려는 학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5월 30일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한국선 연구에 나섰다. 연구소는 한국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영문 한국단행본 <한국선종사> 출판을 계획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학연구소는 개소식을 대신해 '한국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제로 개소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병행했다. 주제발표에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신라·고려 선사사의 역사와 내용 및 쟁점', 이병욱 종학연구소 연구원의 '고려 귀족문화 전성기의 선종사',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의 '고려 무신집권기의 선',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고려말 선사사 내용 및 쟁점' 순으로 진행됐다.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는 '한국선종사' 저술에 앞서 이뤄져야 할 토론과 합의의 주제들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조계종 이상연 기자

전국 불화 3000여 점 畵記를 한눈에

불화의 화기(畵記)에는 불화조성을 둘러싼 제반 내용이 담겨 있어, 불교미술을 비롯한 불교 관련 사회경제·제도적 측면의 파악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 이하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불화 화기집>을 펴냈다. 책은 연구원이 1989~2007년까지 조사한 전국 불화 3000여 점 가운데 화기만을 수정·보완해 모은 것이다. 책은 1950년 이전 조성된 불화를 3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시대별로 수록하고, 불화를 조성한 화승(僧侶) 2400명을 분류해 작품색인을 더했다. 또, 화기의 용어 가운데 해제가 필요한 480여 항목을 풀이해 담았다. (02)701-6830 조동섭 기자

<학술단산>

- 불교학 연구 지원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범상)는 제8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분야는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불교관련 번역 분야로 2명씩 4명에게 모두 3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력서 및 박사학위논문, 번역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6월 20~25일 kbfr@paran.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9월 경 불교인론을 통해 발표된다. 사무국장 김종환 (011) 9789-3083 노덕현 기자
-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6월 10일 오후 1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다문화사회와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 제5회 선리연구원 학술회의 개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범진)은 6월 14일 오후 2시 AW컨벤션센터 하림각 3층 아젤리아 홀에서 제5회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화제의 신간 **청와대 입지의 재조명**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많은 외침과 역경에서도 나라를 지켜온 민족이라고 자위하기보다는 침략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부국강병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地理學的 불리함을 地理的 이로움으로 승화시켜 작지만 강한 나라 초일류국가를 지향하는데 풍수가 기여할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화려함에 감춰진 치명적인 독을 간파하고 있다.

- ◆ 갈등과 논란을 겪는 세종시 입지를 국내외 역사적 도시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다.
- ◆ 우리의 국토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 희망의 땅이 곳곳에 있다.
- ◆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 ◆ 전국토의 명혈을 모두 찾아 쓴다 해도 36을 끝장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중학 지음 / 신국판 / 328쪽 / 정가 20,000원

육임이 보인다 | 이계 풍수사 | 육묘학 핵심비결
 풍수 지음/4x6배판/양장본/70,000원 | 신국판/상재권 지음/15,000원 | 신국판/승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 그림 당사주 대전 |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승월 스님 지음/신국판/양장본/50,000원 | 4x6배판/이선일,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 徐昇機 지음/4x6배판/양장본 1권 880쪽 2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론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